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치수 145p, 중고선가치수 159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45p(+2p, WoW), 중고선가치수는 159p(+1p, WoW)를 기록함. 지난주 대우조선해양은 현대LNG 해운으로부터 174,000CBM LNG운반선 1척을 수주함. 납기는 2024년 2분기임. (Clarksons)

Hyundai Heavy Industries wins US floating platform prize

현대중공업이 미국 원유개발업체와 5.8억달러 규모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FPS) EPC계약을 수주함. 2024년 하반기 인도예정임. (Upstream)

유조선가 12% 상승

유조선 가격이 +12% 상승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상승함. VLCC 신조가는 2020년말보다 +19% 상승한 1.02억달러를 기록함. 지난 16개월간 해운시장의 변화로 운임뿐만 아니라 선가도 상승했지만, 유조선은 선복과잉으로 운임시장은 저조세임. (선박뉴스)

LNG선 정기용선 증가 전망

LNG시장 장기용선 문의가 증가함. 2021년말-2022년초 유례없이 많은 정기용선체결 건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용선기간은 최소 3년에서 10년정도로 예상됨. (선박뉴스)

Maersk expands logistics arm with \$924m of takeovers in the US and Europe

1등 선사 Maersk는 9.24억달러규모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함. 미국 Visible Supply Chain Management와 네덜란드 B2C Europe Holding이 대상 회사임. 이커머스 택배 부문으로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Tradewinds)

미 상원, 바이든표 1조달러 인프라 예산 통과 '눈앞'

바이든의 1조달러 규모 인프라투자 예산이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음. 공화당의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토론 종결에 찬성표를 던져 필리버스터가 종료됨.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석이기때 통과까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됨. (연합뉴스)